



해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내년 출범 ‘무산’... 2027년 이후로

# 尹 불법 계엄·민주당 내 불협화음 ‘발목’

정부 “주민투표 후 최소 1년 필요”... 道 로드맵 빼끗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불리한 여론조사 결과에 궁지  
2027년 도입 시 지방의원 한시적으로 80명까지 늘어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약속했던 오영훈 도지사의 1호 공약이 무산된 주요 이유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3 불법 계엄과 더불어민주당 내 불협화음이 꼽힌다. 제주형 기초단체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과 앞으로 쟁점을 정리했다.

▷정부, 제주도 로드맵 불가=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대의 민주주의 약화, 도지사 권력 집중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제주형 기초단체 모델을 구상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여론조사와 속의 토론을 거쳐 지난해 1월 행정구역울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조정하는 3개 기초시설치 방안을 권고했다. 도는 이 권고안을 수용해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단체를 출범하려 했지만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발목이 잡혔다.

법에 따라 지자체를 폐지·설치하거나 통합·분할하는 것은 국가 정

책으로 규정돼 있으며, 또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실시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계엄 사태로 지난해 12월 행안부 장관이 사퇴하며 주무부처는 6개월 넘게 아무런 결정도 못하는 ‘무의사 결정’ 상태에 빠졌다.

이후 ‘제주형 기초단체 지일’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며 동력을 얻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 내년 7월 출범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잠재우지 못했다.

그때마다 도는 “올 8월까지 새 정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내년 7월 출범이 가능하다”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은 달랐다. 정부는 주민투표 후에 도 최소 1년 간 준비가 필요하다고 도정 로드맵을 수용하지 않았다.

올해 8월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해 10월 투표에서 찬성이 많더라도 법 정비 등 남은 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는 현행 체제로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다.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오영훈 지사.

계속된 민주당 내 불협화음 노출과 3개 기초시에 대한 주민 공감대 부족도 내년 도입이 어그러진 주요 이유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시가 2개로 쪼개지면 불필요한 동·서지역 간 갈등이 생긴다며 지난해 11월 도정 계획에 반대하는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했고, 오 지사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올해 8월에는 3개 기초시 반대 의견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까지 기습 공개했다. 또 도의회도 비슷한 경향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오 지사를 더욱 궁지로 내몰았다.

▷2027년엔 지방의원 80명?앞으로 행정구역 쟁점을 해소해 2026년

7월 이후 제주형 기초단체를 도입하는 것으로 도민 사회가 합의해도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다.

내년 도입이 무산된 만큼 그해 6월 예정된 지방선거는 2030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광역의원만 뽑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 지사 바람대로 2027년 6월 보궐선거 후 한 달 뒤인 그해 7월 혹은 이듬해 6월 총선 한 달 뒤인 그해 7월쯤 제주형 기초단체가 도입되면, 이 무렵에는 광역의원 40명(내년부터 폐지되는 교육의원 5명 제외)에 더해 기초의원들과 기초시장까지, 한동안 선출직 공직자가 급증하는 문제에 부닥친다. 또 이 때 뽑히는 기초의원과 기초시장 임기는 4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행개위 용역 결과 3개 기초시를 가정했을 때 광역의원 정수는 23명으로 줄이고, 기초의원은 40명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주형 기초단체에 실제 필요한 지방의원은 63명으로 추산됐지만 2027년이나 2028년에는 한시적으로 8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직자 인건비 문제에 민감한 시민 사회와 지역 형평성을 감안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도,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 재공모

오는 11일 설명회... 단독 응찰 시 수익계약 체결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 응찰 여부 주목

속보=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재공모를 진행한다

재공모에 따른 현장설명회는 오는 11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리며 현장설명회 참석 기업과 법인에 한해 사업제안 자격이 주어진다.

현장설명회에서는 공모 예정 일정과 평가 세부 내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질의·답변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장설명회 이후에는 1단계(PQ) 평가, 2단계 사업제안서(정량, 정성) 평가를 거쳐 2026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에너지공사 관계자는 “1300억원 수준의 도민 이익공유금

등 공모지침서 상의 조건은 1차 공모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1차 공모에는 국내 발전 공기업 한국중부발전만 참여했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는 불참했다.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추자도 해상 일원을 해상풍력발전단지로 조성하는 ‘공공주도 2.0풍력개발사업’이다. 개발 예정지는 서울특별시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400여㎢ 해상으로 총사업비 최대 24조원, 발전 용량은 2.37GW로 전 세계 해상풍력발전단지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모에도 단독 응찰되면 수익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위령식기자 yswi1968@ihalla.com

## 정기국회 시작... 제주 법안들 ‘언제쯤’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현재 행안위 계류 중

10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부터 가동된 가운데 제주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난 대선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 국회의원들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지위가 바뀐만큼 법안 처리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생태법인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상설화, 도조례로 분리과세 대상을 정하고 세율·세액감면을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행안위는 정기국회를 앞둔 지난 달 26일에는 법안소위를 열고 이들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지난 7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행해지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올 1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제주에서도 허용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도시민박업이 과도하게 퍼지는 경우 주민 주거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실상 무등록 숙박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며, 투기 수요가 증가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관광진흥법’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다른 법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건강주치의제 운영위 출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진명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보건 의료·복지 분야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기본계획’ 심의가 진행됐다.

오소범기자



마늘 파종하는 농촌 4일 서귀포시 대정읍 농경지에서 한 농민이 마늘 파종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수 축 상**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장 봉 길

(애월농협 하가리 영농회장)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애월농업협동조합**

**수 축 상**  
농협중앙회 새농민상



강경운·현정자 부부

(애월농협 이사)

농협중앙회 새농민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애월농업협동조합**

**수 축 훈**  
황조근정훈장



김 보 영

(前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교육자로서 재직하는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남읍리향우회 회원 일동**

**수 축 훈**  
The University of Texas at Tyler  
토목공학과 교수



고 민 혁

(부 : 고창현 · 모 : 故 강경옥)

The University of Texas at Tyler 토목공학과 교수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방분권제주본부**  
대표 김 기 성